

시민과 소통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다

우범기 전주시장,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후속 조치로 현장 방문 실시

우범기 전주시장이 시민들의 민원과 전주 발전을 위한 각종 요구사항에 대해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하는 현장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우범기 시장은 13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평화1동 장승배기 지하보도와 동서학동 은석마을 일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날 현장 방문은 올 한해 시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을 이어온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중 주민들과의 대화 시간에 나온 민원 현장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추진했다.

먼저, 우 시장은 평화1동의 장승배기 지하보도를 찾아 이용률이 크게 줄어든 지하보도의 활용 방안에 대해 담당 부서의 보고를 청취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

이 자리에서 우 시장은 담당부서에 장승배기 지하보도뿐만 아니라 전주 시 전역의 지하보도까지 새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우 시장은 이어 국도 및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곳에 인접한 마을로 도로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소음·분진 피해



우범기 전주시장은 13일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의 후속 조치로 평화1동 장승배기 지하보도와 동서학동 은석마을 일원을 차례로 방문했다.

가 발생한 동서학동 은석마을을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에 우 시장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게을리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해당 지역에는 현재 진행 중인 새만금전주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피해보상 차원의 파크골프장이 건립될 예정으로, 시는 앞으로도 주민들의 민원 대응 및 해소를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에 앞서 우 시장은 올 한해 △덕

진동 가련산공원 △평화2동 난전들로 도로 △팔복동 추천로 뚝방길 등 ‘찾아가는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시된 주민들의 불편 사항과 지역 발전에 대한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 방문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달에는 효자동의 서목4길 일대 ‘가로수 대형화에 따른 주민불편사항’ 민원 현장을 방문해 가로수 대형화로 인한 상가건물 뿌리 침투와 바닥유기 등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아울러 우 시장은 직접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관할 구청장 및 해당부서의 현장 방문을 지시하고, 그에 대한 보고를 직접 챙기는 등 시민과의 대화가 주민 의견 수렴에 그치지 않고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후속 현장 행정을 펼쳐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현장을 방문할수록 정말 많은 시민이 시정에 관심을 갖고 애정 어린 시선으로 전주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을 직접 방문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그곳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연중 진행되는 ‘2025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는 오는 15일 우아2동에서 이어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이 주민 참여와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 소통·나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전주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앞장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 주민 소통·나눔 공간 자리매김

전주시는 행정안전부 지역사회 활성화 기반 사업에 선정돼 운영 중인 주민소통·자활복합공간(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이 주민 참여와 이용 확대를 통해 지역의 대표적 소통·나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주민소통공간 내 4층 공유공간의 경우 카페와 회의실, 배움터, 함께 주방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올해 60여 건의 대관이 이뤄져 주민들의 모임과 교육, 회의, 음식 봉사 등 다양한 활동 공간으로 제공됐다.

뿐만 아니라 동심문화회와 기타 동아리, 마을공동체 회의, 주민 전시회 등이 정기적으로 이뤄지면서 생활문화 기반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문을 연 ‘함께 주방’은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음식을 만들고 나눌 수 있는 열린 주방

으로, 개소 이후 자발적인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매달 무료급식 음식 나눔 조리 △뚝거노인과 함께하는 빵 만들기 프로그램 △지역 아동 대상 ‘함께빵’ 나눔 활동이 운영되고 있다.

이는 해마다 노송동에서 남몰래 선행을 베풀어온 ‘얼굴 없는 천사’의 나눔 정신을 계승하는 실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천사마을 희망문화센터에는 주민소통공간 외에도 자활사업단 작업장과 경로당, 체육공간 등이 함께 입주해 소통·문화·자활이 결합된 복합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 주민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지역 공동체의 회복과 나눔, 복지를 실천하며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 서신도서관, 중장년 위한 인문 프로그램 운영

전주시 서신도서관은 지난 8월 14일부터 오는 11월 7일까지 매주 목요일 중장년을 위한 인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하며, 전주문화재단과 삼천생활문화센터, 서신도서관이 협력해 진행하는 ‘중장년 인문 프로그램’ 공모사업으로, 매주 △멋(영화) △삶(MBTI, 약, 자기결정권) △돈(역사, 자본탄생, 금융) 등의 주제를 통해 중장년층의 새로운 인생 설계를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지난 2일 프로그램에서는 중장년 40명과 함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고 ‘아름다운 마무리: 웰다잉의 이론과 실제’를 주제로 특강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서신도서관은 이어 오는 16일부터 총 4주에 걸쳐 3번째 테마인 ‘돈’을 주제로 한 강연을 이어갈 계획이다. 명화를 활용해 돈의 역사와 돈에 대한 인간의 욕망이 어떻게 역사를 움직였는지를 깊이 있게 탐구하는 시간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2차 공공기관 이전 유치 전략 제시

전주시정연구원, 이슈브리프 통해 기존 공공기관 이전 추진 경과·2차 이전 필요성 밝히

전주시 정책연구기관인 전주시정연구원(원장 박미자, 이하 연구원)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2차 공공기관 이전 등 균형성장 거점 육성’에 발맞춰 2차 공공기관 이전 필요성 및 전략적 시사점을 제시한 ‘JRI 이슈브리프 제10호’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연구원은 이번 이슈브리프를 통해 공공기관 이전이 기존의 불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지방에 공공기관을 이전하고 지역과 상생발전의 장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음을 설명했다.

연구원은 또 지난 1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청장년 인구 유입과 같은 인구구조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났지만, 수도권 집중 및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2차 공공기관 이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연구원은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히 한 개 기업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적인 인구 유입 △이전을

위한 시가지 조성 △기반 운영 과정에서의 활발한 경제활동 △연관 업체를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과의 시너지 △지방세 유입 등의 다양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으로 손꼽았다.

연구원은 2차 이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이전 대상 공공기관, 이전 대상 지역 지방자치단체 등 3대 주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중앙정부는 지역 균형 차원의 형평성 및 연계 발전을 위한 효율성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고, 이전기관은 경영환경 및 입지 여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는 만큼 이러한 이해관계가 합치돼야 원활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능할 것으로 연구원은 내다보고 있다.

이에 연구원은 전주시가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최적 입지 제공을 위한 집중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

했다.

또 최적 입지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간선도로 접근성과 혁신거점으로서의 적합성이 높으면서 기존 혁신도시와 상호작용이 가능한 위치이며, 상대적으로 낮은 개발비용이 예상되는 지역을 선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연구원은 이어 전북특별자치도에 대해서는 기존 혁신도시인 전북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 전주시, 새만금개발과의 연계를 고려해 단순 공공기관이 전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관문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 소멸 대응을 위해 산·학·연·관이 하나로 힘을 모아 지역에 적합한 공공기관이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브라질 상파울루시 대표단, 전주 방문

남미 최대 도시인 브라질 상파울루시 대표단이 국제교류를 위해 대한민국 대표 문화도시인 전주를 찾았다.

전주시는 13일 전주를 방문한 브라질 상파울루시 방문단과 문화교류 및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전주의 한식·한지 문화를 중심으로 교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찾은 상파울루시 방문단에는 마르시오 켄지 이토 상파울루 시의원과 한류 콘텐츠 사업가 등이 대거 참여했다.

방문단은 간담회에 앞서 한식창의센터를 방문해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 전주’에 대한 브리핑을 청취하고, 궁금증을 해소하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또 한식창의센터와 한지산업지원센터의 주요 공간을 둘러보기도 했다.

이처럼 우범기 전주시시장과의 면담에서는 △2026년 상파울루시 한식 축제 기간 중 전주시 홍보 부스 운영 △한식 다큐멘터리 제작 관련 전주시 촬영 협조 등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이와 관련 남아메리카 최대 도시인 상파울루시는 △한국문화의 날(8월 15일) △한복의 날(10월 21일) △한식의 날(10월 23일) △김치의 날(11월 22일) △K-drama의 날(11월 29일)을 지정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왔다.

시는 상파울루시와의 이번 교류를 계기로 한지·한식을 비롯한 k-콘텐츠를 기반으로 남아메리카 지역까지 국제교류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권희성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TOP MARU

탑은 최고 의미의 TOP과
마루는산곡대기 정성을 뜻 하는 순우리말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국보11호 미륵사지석탑을 빚어냈던 역사의 후예,
익산농업인들의 당당한 소망과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익산시조합운영협의회

농협익산시지부	지부장 진현욱	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욱	오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채병덕	황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최사식	삼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기배	서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호순
금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백낙진	왕궁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조홍	여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정우창	북익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득추	망성농업협동조합	조합장 박명남	성당농업협동조합	조합장 허정현
당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학림				익산원예농업협동조합 조합장 김병학				익산군산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심재집			
탑마루조합공동사업법인 대표 손선규											